

인터넷 벤처비즈니스의 유형별 평가요인 및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Factors and the Performance of Internet Venture Business Types

이명호(외대 경영학과 교수)
이우형(외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허 훈(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

Abstract

지난 1999년은 우리 나라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한 해였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참신한 사업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만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 시장은 계속 확대 추세 일로에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벤처산업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었으나 주로 벤처산업의 행태나 벤처 캐피탈회사의 유형을 밝히는 것,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들어, 벤처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었으나 연구주체가 협소하여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요인들을 고찰하여 보고 이를 벤처기업의 유형화연구와 연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평가요인들이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국내 벤처기업들의 평가요인들의 객관적인 도출과 벤처기업들의 전략적 유형화 연구를 덧붙여 연구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평가에 활용코저 하는 것이다.

1. 서론

세계 산업의 조류는 지식화,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경제적으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글로벌화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산업의 소프트화와 벤체 비즈니스화를 가속화시켜 21세기 산업지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어졌고, 실제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지난 IMF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은 경제난극 극복의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성장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그러나, 창업 후 벤처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벤처기업가들은 급속 성장, 인력/자금/관리상의 곤란 등 급속한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고, 경영지식 및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기술분야의 배경만 가지고 있는 기술창업자들은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기업 발전에 따라 벤처경영자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벤처 열풍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어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9년은 우리 나라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한 해였다. 이전까지 생소했던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5년도 채 안된 코스닥시장은 초활황세를 보이면서 투자

가들에게 보답했다.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인식된 코스닥투자는 일반인들에게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어떤 면에서 과열 우려까지 낳고 있지만 코스닥 열풍, 벤처 열풍은 이미 경제현상으로 정착됐으며,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참신한 사업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만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 시장은 계속 확대 추세 일로에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벤처산업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었으나 주로 벤처산업의 행태나 벤처 캐피탈회사의 유형을 밝히는 것,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한국과학기술원, 1987, 1991; 이진주, 1984; 김홍경, 1990; 나중덕, 1985, 1994). 최근 들어, 벤처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조형래, 1995; 백경래, 1996; 박상문, 1997)이 조금씩 진행되었으나 연구주체가 협소하여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요인들을 고찰하여 보고 이를 벤

초기기업의 유형화연구와 연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평가요인들이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국내 벤처기업들의 평가요인들의 객관적인 도출과 벤처기업들의 전략적 유형화 연구를 덧붙여 연구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평가에 활용코저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벤처비즈니스의 정의

요사이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처럼 친근한 용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학자나 국가에 따라 벤처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다(Green, 1991).

국내에서는 창조적 기술,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하이테크 기업이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Venture Business, High Technology Small Firm, New Technology Based Firm, Risky Business 등과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Cooper(1971)는 벤처비즈니스를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회사로 정의하였고, Bolliger et al.(1983)은 소수의 핵심 창업자가 기존의 다른 기업에 부속된 별개의 사업부서나 계열회사가 아닌 자본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체로서,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정의하였다.

나중덕(1984)은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기업화를 위하여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의 경우 기대이익이 큰 사업을 기반으로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모험기업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진주(1984)는 소수의 핵심적 기술창업인이 기술혁신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규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은 높으나 성공의 경우 높은 이익이 기대되며,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여 성취하려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군을 모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벤처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형래, 1994). 첫째,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창업을 통해 개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며, 셋째, 높은 위험이 있으나 성공의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된다.

2.2 벤처캐피탈의 정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 태동하여 투자대상, 발생목적 등 여러측면에서 외국의 정의들과 다른데, 특히 투자대상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등 기술개발 관련자금과 신기술의 기업화 관련자금의 투자까지도 포함되는 금융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황태연, 1999)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outarell(1997)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주식에 해당되는 지분에 대한

투자로서 그 기업이 목적을 달성토록하고 대신 그 중소기업의 소수 주주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Cooper(1981)는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역점을 두는 회사에 투자되는 자금으로 정의하였으며, Dominguez(1974)는 "벤처캐피탈의 개념은 지분금융과 항상 연관되는 것이며 벤처캐피탈은 내적인 확장을 피하는 새롭고 투기적인 기술지향적인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한 직접투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특성은 배당과 자본이득에서 큰 대가를 바라는 고도의 위험을 내포한 투자라고 정의 하였다.

2.3 인터넷 벤처비즈니스 유형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벤처비즈니스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본 절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여러 학자들(ESPRIT, 1996; Kalakota & Whinston, 1996; Timmers, 1998; Bambury, 1998; Rappa, 1999)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거래주체에 의한 유형 연구,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유형 연구, 수입원에 의한 유형 연구가 그것이다.

2.3.1 거래주체에 의한 분류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ESPRIT(1996)에서는 정보교환의 주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1) 기업간 거래(business-business), 2) 기업과 개인간 거래(business-consumer), 3) 기업과 행정기관간 거래(business-administration), 4) 개인과 행정기관간 거래(consumer-administration)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활동에 의한 분류(Kalakota & Whinston, 1996)가 있다.

첫 번째, 기업간 거래(business-business)는 주로 EDI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예, 사설망, 부가가치통신망 등) 상에서 기업간에 주문을 하거나 송장을 받고 지불을 하는 것을 말하며, 무역, 제조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기업과 개인간 거래(business-consumer)는 인터넷 사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예를 들면, 전자상점(Electronic Mall)과 같은 소규모 구매를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거래로는 인터넷상의 웹을 이용한 광고, 케이크나 와인, 컴퓨터, 꽃 배달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자목록(Electronic Catalog)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세 번째,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거래(business-administration)는 아직까지는 이용 초기단계에 있지만 기업과 정부조직간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활동에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다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 개인과 행정기관간의 거래(consumer-administration)는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기업과 개인간, 기업과 행정기관간 거래가 보편화된 후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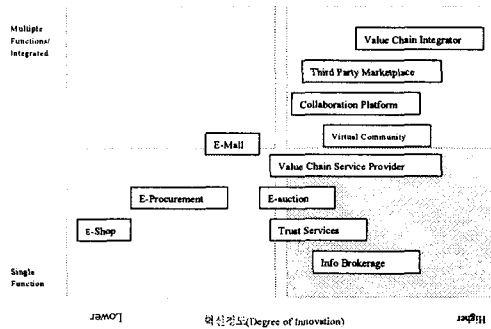
2.3.2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분류

Bambury(1998)는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을 크게 (1) 인터넷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native Internet business models)과 (2) 인터넷에 이식된 실제 비즈니스 모델(transplanted real-world business models)로 구분하면서,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 이식된 사업 모델들은 오프라인과 달리 여러 모델들을 조합하여 시행하기가 인터넷에서는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모델 동시에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2.1 Timmers(1998)의 11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

Timmers(1998)는 비즈니스 모델 아키텍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분해(deconstruction)와 재결합(re-construction)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가치사슬상의 요소를 확인하고, 거래참여자의 상호활동(interaction) 패턴을 분석하여 가치사슬을 따라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을 밝혀냄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Timmers(1998)는 비즈니스 모델을 (1) 혁신정도(the degree of innovation)와 (2) 기능통합 정도(the extent of integration of functions) 두 가지 정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그림 2-1> Timmers(1998)의 유형 연구

왼쪽 아래에 자리한 모델은 기존의 판매업무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자점포(e-Shops)이며, 오른쪽 위 구석에 위치한 가치사슬통합 모델(value chain integration)은 기존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는 모델로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정보흐름을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IT)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복잡한 모델이다.

이들 중간에 위치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도 제공되어 오던 모델로서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해 기존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복합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된 사업 모델들이다.

2.3.2.2 Rappa의 9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

M. Rappa(1999)는 9가지 일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제시하면서, 각 유형별로 사업운영 방식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모형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들은 독립적으로 응용될 수도 있지만 사업 전략상 서로 다른 여러 개 모델을 조합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모델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만,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분하는 기본형 모델들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파생모델(derivative models)을 가능케 볼 수 있다.

2.3.3 수입원으로 분류한 전자상거래 모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수입원(revenue source)로 구분하면 크게 다음의 표와 같이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주수입원으로 구분한 6가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수입모델	수입원
(1) 광고형	사이트 히트 수
(2) 소매점형	인터넷을 통한 직접 판매 매출
(3) 채널형	웹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유통점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토록 하는 것
(4) 제휴형	배너 광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수수료 수입
(5) 프랜차이즈형	프랜차이즈 허가에 따른 수수료
(6) 가입형	컨텐츠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가입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래주체에 의한 유형과 수입원에 의한 유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전자상거래 유형은 거래주체에 의해 B2B, B2C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수입원에 의해 전자상거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원에 의해 유형을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중개형(brokage model), 광고형(advertising model), 소매점형(retailing model)이다.

거래주체에 의한 분류	수입원에 의한 분류		
	중개형	광고형	소매점형
B2B			
B2C			

<그림 2-2> 본 연구의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

2.4 인터넷 벤처 비즈니스 성과에 관한 연구

인터넷 벤처비즈니스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이 있다. 특히 기업의 성과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사이에 그 타당성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는데 Dess & Robinson(1984)은 주관적인 측정방법이 기업의 실제적인 성과에 대한 신뢰성있는 지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고, Sapienza, Smith & Gannon(1988)의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성과 지표와 객관적 성과 지표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vin & Slevin(1990)은 벤처기업의 성과로서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매출액, 매출 성장률, 매출 이익률,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중요도와 각각의 재무기준에 대한 창업가의 만족도를 Likert Scale로 측정된 후 기업의 성과를 만족도, 중요도로 계산하였다. 그들이 주관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한 이유는 벤처기업들이 재무자료 제공을 망설이고(Robinson et al., 1986), 객관적 재무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성이 결여되고 정확한 재무자료라고 해도 소기업의 자료는 해석하기가 어렵고(Cooper, 1971), 재무적 자료의 절대치는 산업관련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정확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선택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백경래,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객관적 성과지표와 주관적 성과지표를 함께 측정하려 한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객관적 성과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앞서 유형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별 기업들의 순이익, Cash Flow, 주가, ROI 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 주관적 성과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성과를 측정하게 위해 앞서 유형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별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투자만족도를 측정한다.

▣ 참고문헌

- 김창수, "정보기술지출이 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학연구, 제7권1호, 1997
- 김 철, "국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성과",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홍경, "모험기업의 유형별 전략과 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나중덕, "모험자본회사의 유형별 투자형태 및 성과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이진주, "모험기업, 모험자본, 기술창업자", 대한상공회의소, 1984
- 이현숙, "한국벤처기업의 유형과 경영성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기봉, "벤처기업 육성과 대기업의 생존 전략", 기업경제, 1998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중소기업청, 1999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중소기업청, 2000
- 조형래, "창업자의 특성, 제품 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1994
- 한준호, "새 천년과 중소·벤처기업", 전자신문, 2000, 3, 6
- Bollinger, L., Hope, K. and J. H. Utterback, "A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 1983
- Bulter Group Report 12, from Gentia, 1999
- Carland, J.W., F.Hoy, W.R.Boulton & J.C.Carland,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9, No.2, 1984
- Cooper, A.C., "Spin and Technical Entrepreneurship", IEEE Transaction on Engineering Management, EM-18, 1971
- Covin, J.G. & Slevin, D.P.,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No.5, 1990
- Gartner, W.B. and Vesper, K.H., "A Taxonomy of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No.4, 1989
- Green, M.,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Comparisons", Routledge, London, 1991
- Kazanjian, R. K., & Drazin. R., "A Stage-Contingent Model of Design and Growth for Technology Based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1990
- Khan, A.M. & Manopichetwattana, V.,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Small Firms : Types and Characteristics", Management Science, Vol.35, No.4, 1989
- Ruhka, J.C. & Young, E., "A Venture Capital Model of The Development Process for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No.2, 1987
- Smith, N.R., & Miner, J.B.,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4, 1983
- Van de Ven, A.H., Hudson, R., and Schroeder, D.M.,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 Entrepreneurial, Organization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Vol.10, No.1, 1984
- Vesper, K.H., "New Venture Strateg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80
- Webster, F.A., "Entrepreneurs and Ventures : An Attempt at Classification and Clarif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 No.1, 1977